

■ 2023년도 아르코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르코공공예술사업(주제심화형)
- 회의일시 : 1차 심의 2022.11.30.(수), 14:00
2차 심의 2022.12.16.(금), 10: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대성, 박이창식, 변길현, 양혜원, 정윤희

주제심화형 사업은 공공적 이슈를 반영한 예술기획을 2개년 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의제화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공예술 사업주제(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에 따라 기획한 예술 프로젝트이며,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19건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주제심화형 사업에 지원 신청하였다.

심의는 사전에 제시된 심의 기준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우수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업 기대효과>를 토대로 사업 수행체계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여건, 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 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사업 주제의 공공성과 시의성, 기획의 구체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과 기여와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① 2개년 지원사업인만큼, 사업이 실제로 구현되기 이전에 주제발전을 위한 단계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②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와 사업을 발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조정 역할을 기대할만 한 지가 평가에 있어 주요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공모에 접수된 19개 신청단체 중 행정 결격 2건을 제외하고 17건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1차 심의에서 6건, 2차 심의에서 사업 제안에 대한 핵심 내용 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하였는데, 주제심화형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2년간에 걸쳐 진행될 사업주제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선정된 그룹들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주제심화형으로 주어진 주제들을 이번 공모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공모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공공예술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공공예술로서의 기대 성과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의회의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계 2050>은 기후 변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비발디의 사계를 편곡하여 실연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클래식을 통한 공공예술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공감감이 있었으며 사업 실현 가능성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언두 플래닛: 기억 (비) 물질 흐름>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문제를 재고찰하고 지구와 생명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프로젝트로, 장소특정적 연구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과 소통과정을 토대로 하는 공공예술 작품 커미션 제작 과정이 돋보였으며, 이후 주제의 공론화를 위한 전시와 심포지엄 등 사업의 수행구조

또한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예술기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RSE 개발>은 개인의 신체 영토와 경계, 관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변화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단체의 안정적 사업수행 역량 또한 인정되었다. <저항하는 기술>은 기술 간극, 위계의 문화 완화를 위해 장애, 여성, 신진, 경력 단절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으로, 사업의 시의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포럼, 교육, 연구, 전시, 발간 등 구체적 사업구조 및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공감이었다. <예술로 GREEN 전주>는 기후 위기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예술 프로젝트로, 과거 사업 준비 기간을 통한 안정적 사업계획과 예술가, 기획자,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안정적 거버넌스 사업 수행구조가 돋보였으며 작품 제작, 교육,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공론화 기능이 기대되었다.

주제심화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가 공공예술의 주제군으로 제시되고 지원자는 제시한 주제군에 부합하는 기획을 하는 구조인데, 제안된 주제에 한정하여 기획서를 쓴다는 것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한정된 구획 안에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주제에 예술적 사업을 맞추는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예술적 다양성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주제심화형의 특성상 2년간의 진행과정, 과거의 축적된 연구나 성과가 밑바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분야여서 나름 모든 지원서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선정된 단체보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가 많아 아쉬움이 크나, 공공적 이슈를 반영한 예술기획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주제심화형이라는 목표에 맞게 충분한 연구와 자료조사를 거친 후,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공예술 활동을 선보이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일반인이 수혜받을 수 있는 공공예술로서의 가치 등에 조금 더 증명할 수 있다면, 이번에 미처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에도 공감의 연대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아르코공공예술사업(자율실행형)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르코공공예술사업(자율실행형)
- 회의일시 : 1차 심의 2022.11.30.(수), 14:00
2차 심의 2022.12.15.(목), 10: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대성, 박이창식, 변길현, 양혜원, 정윤희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자율실행형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양한 사업유형 지원을 통한 공공예술의 확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단년도 사업 25건, 2개년 사업 40건의 신청이 있었고 3건의 행정결격을 제외한 62건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심의기준(사업 실현가능성, 사업 우수성 및 공공성, 사업 기대효과)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 서류심의에서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2차 PT심의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공공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결과의 예술적 수준 또한 중요하게 검토하여 최종 7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당대의 급진적인 예술 담론을 바탕으로 공공예술의 확장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비롯해 급격하게 변하는 삶의 조건을 문제 시 하는 기획안이 다수였다. 환경, 로컬, 공동체, 디아스포라라는 의제가 삶의 조건과 예술의 조건을 다시금 질문하는 목소리와 공명하고 있었고 장애, 쿼어, 노년 등 동시대의 사회적 의제를 예술의 주제와 방법으로 연결한 기획안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있는 사업 기획서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함께 공공예술의 범주와 기능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술의 급진화를 통해 출구 없는 현실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와 일상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해 보다 많은 이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모아졌다.

‘지역(local)’ 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국지적이고 지리적인 영역이나 행정 단위만이 아니라 장르, 젠더, 계급, 세대, 정치가 경합하고 교차하는 영역을 아우른다. 따라서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를 사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예술의 확장성을 구현하려는 자율실행형 사업의 주요 취지 및 방향성과 만나게 된다.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은 지역의 특이성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데이터로 재환원하는 일상실천 미술관>은 일상실천 미술관, 시각적 리터러시 예술지도, 데이터 미술관 구축이라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획안이 돋보였으며 새로운 방식의 공공 예술 영역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예술로 공간을 품다.

예술인 완주 한 달 살기>는 예술 레지던시 구축 및 실현을 목표로 하는 추진 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이 돋보였다. 실행 주체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 또한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고 지속하는데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안다. 타지역의 사례를 참조하되 완주라는 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한 공공예술 작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생태와 환경을 결합한 환경연극 상연을 통해 예술의 공공적 성격을 구현하고자 한 <공동체와 함께 하는 환경연극> 또한 심의위원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국제교류를 통해 환경연극이라는 소외된 장르(지역)의 보편성을 확립해나가하고자 하는 추진체계와 오랜 시간 지역에서 해당 장르를 고민하고 수행해온 이력 또한 존중할만 했다. <새로운 자연계약을 위하여>는 지역에 대한 이해, 동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예술 개념의 탐색과 적용, 예술적 실천 방안의 구체화 등 공공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 예술적 실험과 실행의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매개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준다면 좋을 듯하다. <메모리얼 샤워>의 기획에서 심의위원들은 디아스포라 김동일의 유품 정리를 참여자와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기억을 공공의 기억으로 전유하는 예술 실천 및 실험에 주목했다. 이 기획이 제안하는 유족-되기라는 예술적 실천과 참여 과정이 죽음과 애도라는 정동을 동시대적 보편 감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단년도 사업인 <공상의 영역>의 경우 지역주민이 구상하는 미술관에 작가와 비평가가 참여하는 예술 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예술의 공공성, 지역과 장소성이 어우러진 기획이라는 고른 동의를 얻었다. <Joyful Trouble>은 인류세 시대의 행동하는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환경 관찰, 리서치 및 놀이(게임 개발)로 구성된 기획안의 시의성과 구체성이 돋보였다. 2차 심의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 중 <상량 上樑 : 미래의 집-자연의 권리를 위한 주민발의 생태조례 제정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태조례를 근간으로 공공의 가치 실현에 무게 중심을 둔 커먼즈 아트를 실현하고자 한 사업으로 지역, 예술, 공공성, 생태 등의 키워드를 축으로 한 논의과정의 구체성이 인상적이었다. 갯벌을 근간으로 한 지역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매개로 SNS가 아닌 선거라는 미디어를 차용한 <서개벌 선거당선 프로젝트> 또한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예술의 실행에 앞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획이라는 점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개벌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들의 손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로 참신하고 뜻깊은 예술적 시도라고 생각한다.

62건의 사업 기획서를 검토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시금 동시대의 예술 환경과 조건이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당부와 바람을 전해두고 싶다. 예술 활동을 통해 소외되고 소멸하는 곳곳의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열악한 지역을 비어 있는 공간이라 간주하는 순간 예술은 '시혜(施惠)'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한쪽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가가, 일상과 예술이, 지역과 지역이 부대끼고 어울리는 관계, 다시 말해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예술의 호혜(互惠)성은 ‘공공’ (公共, public/commons)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질문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아르코공공예술사업(지속활용형)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르코공공예술사업(지속활용형)
- 회의일시 : 2022.11.30.(수),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대성, 박이창식, 변길현, 양혜원, 정윤희

지속활용형 사업은 기존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연구와 활용 지원을 통한 공공미술의 지속성 및 확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역의 기존 공공미술 자원에 대한 현황 연구·조사와 유지보수, 기존 공공미술 작품을 활용한 아트투어,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사업, 향후 지역 공공미술 작품의 관리와 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등이다. 특히 2023년에는 기존 광역·기초문화재단에 한정되어 있던 신청대상을 민간단체까지 확장하였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신청할 수 있어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공공예술에 대한 개념 확장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실현가능성, 우수성과 공공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였고, 국내 공공예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하였다. 공공미술품들은 심각한 관리문제를 앓거나 도시의 흉물로 표류하기도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미술의 훼손과 방치가 심각하며 정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지속활용과 관리방안과 관련된 제도화는 미비하다. 따라서 기존 공공미술 작품의 재활용과 공유, 관리방안의 구체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모색,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번 공모에 접수된 6개 신청단체 중 행정 결격 1건을 제외하고 5건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3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체의 경우 지역의 공공미술의 실태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관리, 공유, 지속활용의 계획이 구체적이었으며, 이미 지역에서 지속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어 실행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의 공공미술을 로컬리티로 재해석하여 기억, 체험, 기록, 담론 형성과 시의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용방법을 제안한 계획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지속활용형 사업은 공공미술의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여정인 만큼 기대가 크다.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의 활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화를 모색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의 삶에 스며든 공공미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